

외국인 고용 한도 늘렸는데...기업 신청은 '반토막'

상반기 광주·전남 중소기업 412명 신청... 지난해의 52%에 그쳐
 "일감 없어 직원들 임금 주기도 빠듯...38만원 교육비도 부담" 하소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늘려주면 무엇보다 낫습니다. 주문 전화는 한 통도 없고, 일거리가 없으니, 외국인력이 필요하지 않죠..."
 담양군에서 재생 유포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올해 단 한 명의 외국인력도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E-9비자) 규모를 확대했지만, A씨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다.
 A씨의 회사는 건축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거푸집을 재생해 판매하는 곳이다. 거푸집 하나의 무게

는 15kg 정도로, 비교적 무거운 중량을 다루야 해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A씨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매년 많게는 3명가량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왔는데, 올해는 신청안내서조차 읽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재생 유포품 주문은 건설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회사 사정도 나빠지고 있다"며 "최근 2년 새 매출이 30% 가까이 급감해 지금 있는 직원들 급여 주기도 빠듯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부가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해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늘렸지만, 정작 깊어진 경기침체로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기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12만명에서 무려 38%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제조업 7만744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4030명, 서비스업 1만2970명, 어업 8650명 등을 배정했다.
 그러나 커진 고용인력 규모와는 달리, 최근 고용자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다.
 당장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건수는 작년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회원사가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918명으로 전년 1924명 52%(1006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업체수도 지난해 832개 기업에서 412개 기업으로 50.5% 감소했다. 하반기의 경우 상반기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서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를 20% 추가 고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중앙회는 현행 추가 고용 비율인 2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급성이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고 있다.
 상시근로자 10-15인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B씨는 "외국인 인력이 수급하려면 1인 당 38만원이라는 워낙 교육비용이 드는데, 이것조차 부담스러워 하는 업체 사장님들이 많다"며 "멀리 보면 꼭 필요한 정책(고용확대 확대)일지 몰라도 지금으로선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다. 경기 회복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악화는 또 다른 통계로도 확인된다.
 올해 1-4월 광주와 전남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 명목 지급액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광주는 149억원으로 전년 동기(112억원) 대비 33% 늘었고 전남은 128억원으로 전년 동기(107억원)에 견줘 19.6% 상승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 브라질서 '중남미 테크세미나' ...AI TV 핵심기술 소개

유럽·동남아 이어 신기술 체험 기회



브라질 상파울루 '2024 중남미 테크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2024년형 Neo QLED 8K 신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8~29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2024 중남미 테크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AI) TV 시대를 이룰 신제품과 핵심 기술을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브라질, 멕시코, 칠레, 파나마 등 삼성전자 중남미 주요 법인들은 지난달부터 신제품 론칭 행사를 열고 2024년형 AI TV를 소개했다.
 이번 테크세미나는 중남미 지역 영상·음향 분야 미디어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삼성 TV 신제품에 탑재된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NQ8 AI 3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한 네오(Neo) QLED 8K, 게이밍 특화 기능을 탑재한 네오 QLED, 빛 반사 없이 선명한 화질을 즐기는 OLED, 액자형 스피커 뮤직프레임 등을 통해 AI 기술로 향상된 시청 경험과 연결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유럽, 동남아, 중남미 주요 국가에서 테크세미나를 개최해 2024년형 AI TV의 다양한 신규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김용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테크세미나를 통해 삼성 AI TV의 차별화된 기술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낙농가·유업체 내달 11일부터 가격협상 정부 "인상 최소화 중재"

낙농가와 유업체들이 다음 달 11일 우유 원유(原乳) 가격을 새로 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가와 유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는 다음 달 11일 소위원회 열어 원유 가격을 논의한다.
 협상은 한 달간 진행되지만, 진척이 없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각 유업체는 원유 가격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관행적으로 낙농진흥회가 결정하는 원유 기본 가격을 준용해 왔다.
 지난해 우유 생산비가 L당 약 1003원으로 전년 대비 4.6% 늘어나 가격 협상에 들어가게 됐다. 생산비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의 경우 원유 L당 69~104원 범위에서 인상폭을 논의해 음용유 기준 가격을 L당 88원 올렸다.
 소위원회가 올해 가격을 정하면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견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인상이 반영된다. 올해 협상에서는 2025~2026년 유업체가 구매할 용도별 원유량을 조정하는 논의도 처음 진행된다.
 각 업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음용유 공급이 많은 경우 이 물량을 줄이고, 가공유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조정된 원유량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음용유 초과량이 5%를 넘어 이번 협상에서 음용유 감축 범위는 9천112~2만7천337t(톤)이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이를 주재료로 쓰는 유제품 가격이 오른다.
 이에 정부는 엄중한 물가 상황을 감안해 생산자와 유업체들이 원유 기본 가격을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에서 인상하도록 중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지역경제 공동세미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6월 11일 광주 시 서구 치평동 리미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2024년 지역경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주제로, 전남연구원,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BK(Brain Korea)팀과 함께 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나주공 전남대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나눠 진행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광주신세계 도넛 브랜드 '노티드' 개점 첫날부터 '오픈런'



광주신세계가 호남지역 최초로 선보인 도넛 브랜드 '노티드'가 개점 첫날부터 '오픈런'이 일어날 정도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사진>
 30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날 본관 지하 1층에 문을 연 노티드 매장은 백화점 개점 5분여 만에 1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노티드는 서울시 창당

해양에너지 '채용연계 인턴사원' 모집

6월18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희)는 오는 6월18일까지 '2024년 채용연계형 인턴사원'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모집공고는 ▲경영관리 ▲안전관리 ▲영업관리 직무를 대상으로 한다.
 채용 과정은 서류전형-인-적성검사(6월)-1차 면접(7월)-건강검진-최종면접(8월)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입사 후 4개월의 인턴과정을 거쳐 평가 우수자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

이다.
 상세 채용공고와 온라인 지원은 해양에너지 채용사이트 (<https://recruit.hyenergy.co.kr>)를 통해 가능하다.
 채용관련 내용은 062-950-2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광주·전남의 대표 지역기업으로서 ESG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채용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며 "지역인재육성과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1분기 10집 중 1집꼴 복권 구입 5년내 최다...한달 평균 7300원

소득 3분위, 가장 많이 구입

지난 1분기 복권을 구매한 가구가 10집 중 1집꼴로 비중이 최근 5년간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복권 구매로 한 달에 평균 7300원어치를 지출했다.
 30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로또·연금복권·경마·경륜 등의 복권을 구매한 가구는 221만2000가구로 조사 대상 가구(2183만4000가구)의 10.1%를 차지했다.
 10가구 중 1가구꼴로 복권을 산 것으로 이는 2020년 이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다.
 복권 구매 가구 비율은 1분기 기준 2020년 9.3%, 2022년 8.8% 등으로 8~9%대를 기록해 왔다.
 지난 1분기 복권을 구매한 가구가 한 달에 평균 복권 구입으로 지출한 금액은 7천321원이었다. 작년 같은 분기(7550원)보다는 3.0% 감소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복권을 구매한 가구(221만2000가구) 가운데 3분위에 해당하는 소득 상위 40~60% 가구가 50만6000가구로 2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분위(22.8%), 5분위(22.4%), 2분위(17.3%), 1분위(14.6%) 순이었다. 중산층·고소득층·저소득층의 순으로 복권 구매가 많았던 셈이다.
 월평균 복권 구매 지출도 3분위가 8758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분위(7747원), 5분위(7651원), 1분위(6265원), 4분위(5905원) 순이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해보면 2분위는 지출 금액이 1717원(28.5%), 3분위는 182원(14.1%), 5분위는 692원(9.9%) 각각 늘어난 반면, 1분위는 1674원(21.1%), 4분위는 3002원(33.7%) 각각 감소했다.
 최근 정부는 로또 당첨금 증액에 대해 들어다보겠다고 밝혔다. 로또 당첨금을 올리고 판매수익금으로 소외계층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두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측은 지난해 '복권 가격의 결정'이라는 보고서에서 로또 복권 도입 초기 한 게임당 가격은 2000원으로 당시 1등 평균 당첨 금액이 56억원이었으나, 한 게임당 가격이 1천원으로 인하된 이후 1등 평균 당첨 금액은 24억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조세원은 그러면서 로또 복권의 한게임당 적정 가격 수준을 현재 1000원보다 높은 1207원으로 산정했다.
 /연합뉴스

과기부, 디지털 혁신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민관합동 수출개척단' 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부터 베트남에서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이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베트남 수출개척단 활동은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상담회와 양국 간 디지털 분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포럼 등으로 구성된 'K-글로벌@베트남'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행사 첫날 한-베트남 디지털 기술협력 포럼에는 정부와 기업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여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비롯한 주요 디지털 기술 동향과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다.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업

무협약도 체결됐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행사 개최에 앞서 베트남 과학기술부 응우옌만 괴영 남 부지부장장과 환담하며 그간의 양국 간 협력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양국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간 협력 증진방안,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	2635.44(-41.86)
↓ 코스닥	831.99(-6.46)
↑ 금리(국고채 3년)	3.440(+0.015)
↑ 환율(USD)	1379.40(+14.40)